

해남군, 폐교 위기 학교 살리기 결심

군, 민관학 추진위 '북일초·중 학생 모심 캠페인' 효과... 22가구 97명 이주 완료

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이 실제 도시민 이주로 결실을 봤다.

해남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폐교 위기인 북일초·북일중 학생 모심 캠페인을 펼친 결과 새 학기를 앞두고 22가구 97명이 이주를 완료했다.

이들은 리모델링한 빈집에 터를 잡고 해남군민이 됐다.

전입가구는 초등학교 32명을 포함한 학생 42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10명 등이다.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지난 4월 구성된 지역소멸위기 대응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정책으로 100년 전통의 북일초가 폐교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전교생이 북일초 22명(할머니 학생 4명 포함), 북일중 19명으로, 북일초가 폐교되면 자연스럽게 중학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시범사업 선정 후 북일면에서는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학생 모심 캠페인을 진행했다.

빈집리모델링 주택 제공과 지역일자리 연계, 전교생 해외연수, 공부방 꾸미기 비용지원, 온종일 무료 돌봄,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등 '복득복약'을 통해 도시민 유치가 나섰고, 지난해 11월에는 북일초등학교에서 200여명의



북일면 주민과 학생, 향우 등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앞에서 작은학교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해남군 제공>

주민이 모여 '학생모심 캠페인'을 펼친 데 이어 학생과 주민, 향우 등 100여명이 참여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해남군 관계자는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 학교 살리기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한 결과 100여명에 가까운 도시민들이 해남에 정착하게 됐다"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남군 전역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오룡지구 고교 신설 서명운동

신도시 개발 후 학생수 급증... 2024년 고교생 2000명 돌파

무안군이 신형 택지지구인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대대적인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무안군은 남악·오룡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무안군의 학령인구는 도내 군단위 중 최고수준인 1만5857명으로 인근 나주시의 1만6270명과 비슷한 규모다.

또 지난 1월말 기준 무안군 고등학생 수는 2666명이며, 이중 남악·오룡지역 고등학생 수는 1639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남악·오룡지역 고등학교는 남악고등학교 1곳에 불과해 남악고에 입학하지 못하

는 학생들은 목포시 등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는 2024년 7월부터 오룡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남악·오룡지역 고등학생은 2000여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돼 관내 고교 진학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안군은 전남지사와 도교육감 면담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도 교육청은 전남 전체 학령인구 감소와 오룡2지구 분양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항에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한다

목포시, 섬진흥원 연계 테마공원·에듀센터 조성·연구기관 유치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과 연계해 '다도해의 모항' 목포항에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목포시는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용역은 삼학도에 들어선 한국섬진흥원 주변 개발과 섬 연구기관 유치, 관광연계 개발방향 모색 등을 과제로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목포항에 세계 섬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목포를 섬 발전 교류·소통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프로젝트이다. 부산이 동남권의 해양중심이라면 목포는 서남권 섬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세계 섬 테마공원과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에듀센터를 조성하고, 섬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섬 테마공원은 전국 섬의 특색을 담은 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그동안 추진된 삼학도복원화 사

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지난 1월 한국섬진흥원과 실무협의 회도 구성했다. 실무협의회에는 시와 섬진흥원에서 각각 3명, 모두 6명의 실무진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협의한다. 첫 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국 섬 3300개 중 전남에 2160개 있으며, 이들 섬의 관문이 목포"라면서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계기로 목포가 섬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 등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은 지난해 10월 8월 목포 삼학도에 동지를 틀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정책수립 지원과 평가, 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수행한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최근 지도갯벌을 찾은 흑두루미 52개체가 확인됐다. <신안군 제공>

'보호종' 흑두루미 무리, 신안 지도갯벌서 관찰

체계적 관리로 개체수 증가

겨울의 진객으로 알려진 국제적인 보호종 흑두루미 52개체가 최근 신안 지도갯벌에서 관찰됐다.

흑두루미는 러시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중국 양쯔강 유역, 한국,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돼 절멸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평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보호종이다.

흑두루미는 전세계 개체군 대부분이 이즈미에서 월동한다. 신안 갯벌은 번식지로 복상하던 중 무리

가 먹이활동과 휴식을 위해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신안갯벌은 세계유산지역 기준 전체 출현 54종 중 52종, 국내 출현종 66종 중 59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224종의 저서규조류와 568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는 등 우수한 기초생산력을 지니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흑두루미는 지난 1월 18일부터 월동 중인 재두루미 무리에 합류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두루미류는 그동안 신안에서 간혹 소수가 관찰되는 매우 드문 종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찰 개체수가 증가하고 머무

는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자연유산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신안갯벌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 보고인 신안갯벌은 위협요인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에게는 최고의 휴식처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며 "지속적으로 신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집중 단속

영암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내 장기주차 및 방치 차량 집중단속을 연중 시행한다.

현재 영암읍에 건립된 공영주차장은 영암읍 공영주차장(107면), 영암읍성 공영주차타워(135면)로 2개소에 총 주차 면수가 242면이 확보돼 있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및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공영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공영주차타워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이동 주차를 통보하고 불이행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 장기 주차 방지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전에 공영주차장과 영암읍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문동일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공영주차타워 내 부분별한 장기 주차로 인해 군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장기 주차 집중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주차하기 편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위한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